

05 _ 언론계가 바라는 과학기술인

글 잘 쓰는 과학자를 원한다



글 | 김상연 _ 과학동아 부편집장 dream@donga.com

대학 다닐 때 지도교수를 비롯해 여러 교수들이 강조하던 말은 “과학자는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외국의 한 과학자는 한창 연구에 열중하느라 자기 나라가 전쟁을 치른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였다. 비록 과학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세상과 담을 쌓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빠져 있는 과학자의 모습은 대학 시절 내내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기자, 그것도 과학기자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달라졌다.

독자를 흥분시키자

필자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10년 전만 해도 기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귀찮아하거나 바쁘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자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과학자도 있었다. 세상과 담을 쌓아야 훌륭한 과학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젠 그런 일은 드물다. 전화를 하면 대부분 친절히 답해주거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바빠도 시간을 내준다.

그러나 '기사'에 대한 생각은 서로 좀 다

른 것 같다. 과학자들이 보면 화가 나겠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때가 있다. 신문, 잡지, 방송과 학술지, 학회가 서로 다르듯이 말이다.

기자들이 흔히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다.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과학자는 정말 중요한 연구라며 열변을 토한다. 그런데 기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얼마나 중요한 학술지에 실렸고, 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해도 정작 다음날 신문에는 기사 한 줄 나가지 않는다. 먼저 기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게을렀거나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이 없었을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기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기자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기자에게는 누구보다 더 무서운 '책'이 있다. 바로 독자다.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신문에 실리거나 방송을 타기 어렵다. 통신회사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기지국을 짓는 것보다 몇 백만 원 들인 이벤트가 더 큰 기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이런 점이 지나

치면 선정주의의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기사가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대명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연구, 중요하면서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인간계놈프로젝트는 아무리 어려워도 크게 보도를 하고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뛰어난 항암제가 나오고 로켓을 발사하고 로봇이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고급 학술지에 실리면 아무리 연구가 어려워도 일단 '세계적인 연구' 운운하며 기사로 나갔는데 이젠 그것도 수가 늘어나다 보니 어려워졌다.

중학생에게 말하듯 설명하자

재미있는 기사가 되려면 먼저 과학자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사를 재미있게 만드는 1차 책임은 당연히 기자에게 있다. 그러나 기자가 슈퍼맨은 아니다.

요즘 이공계를 전공한 과학기자들은 많

다. 그러나 생명과학을 전공한 기자는 물리나 지구과학, 공학으로 가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리를 전공한 기자는 반대일 것이다. 기자가 먼저 기사를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과학자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솔직히 기자 혼자서는 힘에 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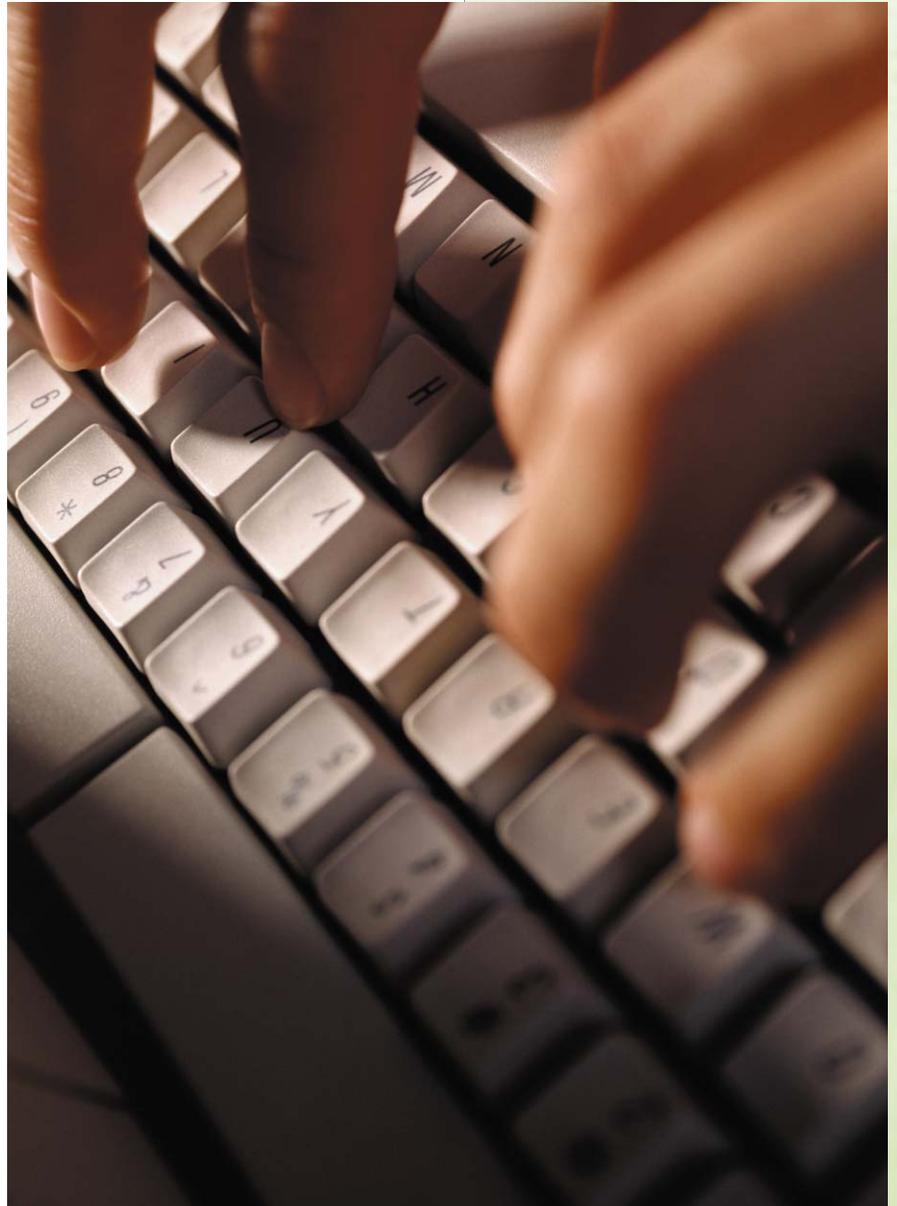
필자는 과학자들을 만날 때 전공을 늦게 말하는 편이다. 이공계가 전공이라고 처음부터 말하면 편해서 그런지 전문용어가 난무하곤 하기 때문이다. 가끔 자신의 연구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는 과학자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럴 때 기사는 크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쉽게 말하는 비결이 뭘까. 명강의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수에게서 나오듯이 독자, 즉 일반 대중 입장에서 자신의 연구를 생각하는 과학자가 훌륭한 기사를 만든다. 여기서 독자의 수준은 중·고등학생, 이공계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에 맞추는 것이 좋다.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많은 연구가 사실 대중적인 재미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대중적인 재미만을 위해 연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해야 어려운 과학기사가 재미있어질까. 이것이 바로 과학자와 기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핵심은 대중이 흥미로워할 만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응용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생명과학 연구가 '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 마린' 식으로 보도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고 문제점도 많다. '황우석 교수 파동'도 기자들의 예측 조급증에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기사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주문은 언론의 평생 과제다. 낱알이 새로운 시도가 나



온다. 최근 몇 년의 흐름을 보자면 사진과 그래픽 등 비주얼의 강화, 현안을 깊게 파헤치는 심층 보도,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식 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일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대중 언론에 발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떨까. 멋져진 사진이나 화려한 그래픽을 준비한다든가, 자신의 연구를 세계 학계의 전체 흐름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든가, 연구팀

에 있는 학생을 부각시킨다든가 하는 시도들이다. 사실 글만 있는 기사보다는 멋진 사진이 한 장 덧붙여 있는 기사는 신문에서 더 크게 나간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 멋진 사진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실험실에 앉아 있는 딱딱한 사진만 준다.

스트레이트 기사, 즉 어떤 사건(연구) 하나를 보도하는 기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기사는 대부분 일정 형식이 있고 기사

는 딱딱해지기 쉽다. 요즘 딱딱한 기사보다 부드러운 기사가 더 환영 받듯이 과학 기사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연구로 논문에 실린 결과 말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는 없을까. 실험 과정에 일반인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없을까. 예를 들어 질병 모델 동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과학자와 기사가 함께 찾는다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리지 않은 연구라도 충분히 흥미진진한 기사를 만들 수 있다.

기자 만나기를 즐기자

앞서 말했듯 요즘 기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피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자에게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먼저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는 과학자도 거의 없다. 그런 일은 훌륭한 과학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홍보에 정신이 팔려 연구에 소홀해 보이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과학자도 있다. 요즘은 대학이

나 연구소에 홍보팀이 발달해서 그쪽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기자가 수많은 학술지를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뒤진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기조차 어렵다. 필자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학술지를 꽤 뒤진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학술지에 난 연구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신의 연구가 확실하고 논문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기자에게 보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과학자가 직접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어렵다면 과총 같은 곳에서 인터넷 게시판 운영하면 어떨까. 기자는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꼭 자신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나온 획기적인 성과를 소개하는 것도 좋다. 필자가 아는 한 나이트 물리학자는 외국 유명 학술지에

난 재미있는 연구를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기사로 연결시킨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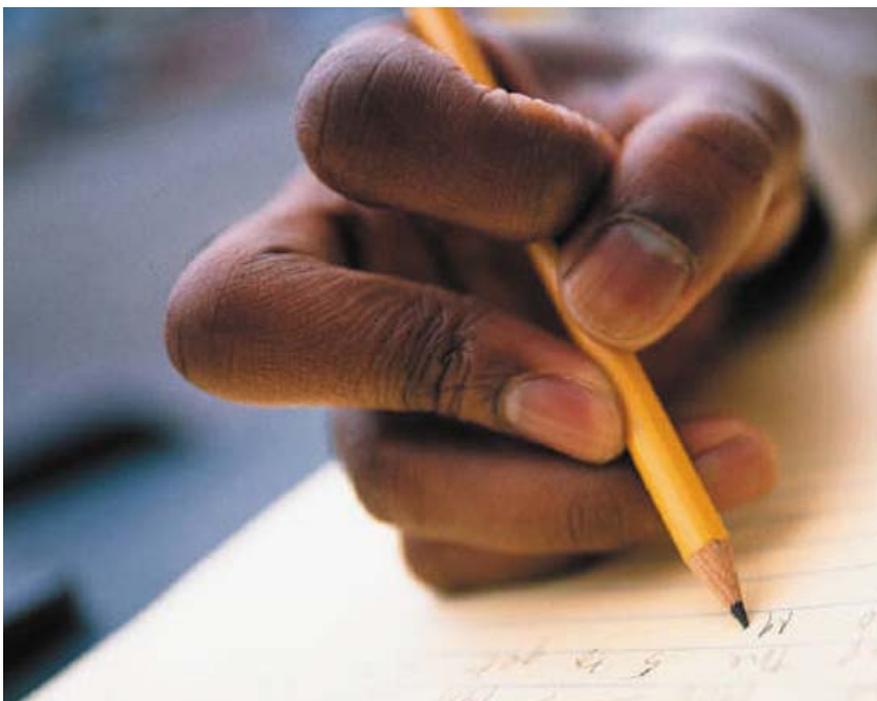
기자와 가벼운 만남을 가져 보는 것도 좋다. 사실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연구를 심층 취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과학자와 지방 출장가는 것을 좋아한다. 차 안에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특정 분야의 연구 흐름도 잘 알게 되고, 그 과학자가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하고 싶은 것이 과학자와 기자의 만남, 거창하게 말하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다. 예전에 과학기술부를 담당할 때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꽤 도움이 됐다. 그러나 서로 시간이 바빠서인지 얼마 안가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만남을 꿈꾸고 있다.

글 잘 쓰는 과학자를 보고 싶다

1년반 전 한 과학자의 글을 받아 기사로 소개한 적이 적이 있었다. 인간의 유전자수에 관한 꽤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과학자는 앞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실으면 안되겠냐고 물어왔다. 일주일 뒤에 받은 글에는 인간의 유전자 수 맞추기 세계 대회라는 가상 이야기가 글의 절반이 넘었다. 유전자를 세계 대회에 빗대 재미를 이끌어낸 것이다. 실제로 나갈 때는 약간 줄었지만 그 기사는 여러 곳에서 무척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창의연구단에 있는 꽤 알려진 어느 교수의 기사를 인터넷 뉴스레터로 소개했다. 청소년에게 권하는 한마디를 주문했더니 “과학자가 되더라도 글쓰기를 연습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과학자가 앞에 있으면 큰 절을 하고 싶다.





베스트셀러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과학자는 정말 글쓰기를 어려워 한다. 물론 신문이나 잡지 기사가 소설처럼 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정보만 쉽게 전달해도 일단 합격점은 넘는다. 거기에 재미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자제 분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써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여도 수많은 글이 논문처럼 돌아온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글이 훨씬 재미있고 쉽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해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써야 한다. 과학자조차 나이를 먹고 직책이 올라갈수록 글쓰기와 발표하기 등 커

뮤니케이션능력이 중요해진다. 요즘 여러 대학이 이공계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교양 또는 전공 필수로 공부하게 하고 있다. 한번에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는 없다. 평소 꾸준한 연습이 '글 잘 쓰는 과학자'를 만든다. 대학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멋진 과학기사를 쓰는 것은 과학기자의 꿈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기자 혼자서 편다고 멋진 과학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과학연론 분야는 과학자가 기자의 멋진 파트너다. 새해에는 과학자와 기자의 멋진 2대 1 패스로 환상적인 꿈이 터지기를 기대한다. ㉮

2000년 세계보도사진전에서 과학기술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F-15기의 음속돌파 장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의 사진기자 존 게이가 찍었다.



글쓰이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했다.